

김이나·딘딘·이원석·정세운의 따뜻한 케미 ‘고막메이트3’

사연 듣고 노래 추천하는 뮤직토크 콘텐츠

“19금 콘텐츠도 건강하게 풀어내야”

“태연·슬리피·김연아 등 초대하고파”

시즌3로 돌아온 SBS 모비딕 ‘고막메이트’의 김이나, 딘딘, 데이브레이크, 이원석, 정세운이 더 끈끈한 케미로 깊이 있는 이야기를 예고했다.

4일 오후 온라인으로 진행된 ‘고막메이트’ 시즌3 제작발표회에는 김이나, 딘딘, 이원석, 정세운과 옥성아 PD가 참석했다. 사회는 이인권 SBS 아나운서가 맡아 진행했다.

‘고막메이트’는 사연을 듣고 그에 맞는 노래를 추천하고 직접 불러주는 4MC의 공감 뮤직토크 콘텐츠다.

딘딘과 정세운은 프로그램의 인기 비결로 따뜻함을 꼽았다. 시즌3에서는 새로운 세트를 선보이며, 김이나가 사연을 읽어주던 형태에서 제작진이 읽어주는 방식으로 바뀐다고 밝혔다.

딘딘은 “처음 이 프로그램을 제 SNS에 올렸을 때가 기억난다. 웬지 모르게 따뜻한 프로그램으로 정수할 것 같다고 올렸더니”(인기 비결은) 우리의 따뜻한 케미 때문이 아닐까”라고 말했다.

이어 “제 다른 점을 가장 많이 찾아주고 세

상에 알려준 프로그램이기도 하다”며 “다른 예능은 항상 웃기고 튀어야 했는데, ‘고막메이트’는 앉아서 대화만 하는 프로그램이다보니 솔직하고 느긋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좋게 봐주시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세운도 “녹화하면서 우리끼리 합도 잘 맞고 편하다”며 “따뜻함이 가진 힘이 강력하다. 그런 면을 잘 보여드려서 많은 분이 좋아하시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

사연과 함께 들려주는 노래도 다채롭게 전하고 싶다고 했다. 정세운은 커버곡 준비와 관련해 “고막메이트’에서 밴드도 해보고 싶고 건반이나 일렉 기타로 다채롭게 해보고 싶다. 나중에 더 많은 것들을 할 것 같아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원석도 “시즌3부터는 욕심을 많이 내보고 싶다. 노래를 많이 들려드리고 싶다”며 “저는 밴드를 하고 있으니까 멤버들과 같이 풀 밴드로 보여드리고 싶기도 하다”고 전했다.

또 19금 콘텐츠로 대화를 나눠도 시청자들이 편하게 여긴다고 밝혔다.

김이나는 “고막메이트’의 19금 콘텐츠가 좋은 건 누군가를 도발하거나 흥분시키려 하는 목적이 아니라서 불편하지 않다. 우리는 일상 속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듣는 분들도 편해한다”며 “(김이나표 명언에 대해) 명언은 아니고, 사람들의 느낌을 한 줄로 정리하는 건데 많이 공감해주신다”고 말했다.

옥성아 PD도 “19금 콘텐츠가 유튜브에도 많다. 물론 한없이 자극적으로 가려면 갈 수 있지만, 우리는 19금 소재라도 건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다. 우리 삶에 필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건강하게 풀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고막메이트’는 출연자들의 끈끈한 케미도 자랑했다. 이원석은 “처음에는 서먹한 게 없지 않았지만, 네 명이 모두 건강한 생각을 갖고 있어서 (케미가) 좋은 것 같다. 조금씩 가까워지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 깊어지는 것 같다”며 “시즌을 거듭할수록 기대가 된다. 깊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막메이트’는 시즌10까지 갈 거라고 생각했다. 다만 제가 계속 있을 거라고는 생각 못 했다”고 웃었다.

네 명의 MC는 프로그램에 초대하고 싶은 게스트도 꼽았다.

김이나는 가수 태연에게 러브콜을 보냈다. 김이나는 “태연씨 아직 기다리고 있다. 우리 인연도 있지 않나. (김이나가 작사한) ‘11:11’을 시간별로 써드릴 수 있다. 저는 준비가 돼 있다. 늘 ‘좋아요’를 누르며 기다리고 있겠다”고 말했다.



고 말했다.

딘딘은 트로트 가수가 아직 안 나왔다며 절친인 가수 슬리피, 정세운은 운동선수와 함께 해보고 싶으며 ‘피겨퀸’ 김연아, 이원석은 밴드 ‘잔나비’의 보컬 최정훈을 게스트로 섭외하고 싶다고 밝혔다.

옥성아 PD는 “시즌3의 변화 중 하나는 운동선수나 배우, 트로트 가수, 영화감독 등 많이 모실 예정”이라며 “저는 장항준 감독님을 꼭 한번 모시고 싶다”고 밝혔다.

아울러 “휴방 기간에도 잊지 않고 기다려주

셔서 시청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늘 좋은 사람들의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프로그램을 만들겠다. 관심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정세운도 “시즌이 더해질수록 더욱 좋아지는 케미가 있다. 기대해주시고 앞으로도 ‘고막메이트’를 사랑해달라”고 밝혔다.

‘고막메이트’는 SBS 모비딕과 KT 시즌(Seezn)이 공동제작한다. 오는 5일 오후 6시에 시즌에서 선공개되며, 일주일 뒤인 12일 오후 6시에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다.

블랙핑크·김은희 작가, 美 매체 ‘영향력 여성’ 선정

‘세계 여성의 날’ 맞아 이뤄져

K팝 간판 걸그룹 ‘블랙핑크’와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킹덤’의 김은희 작가가 미국 연례 매체 버라이어티가 선정한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영향력을 미친 여성’에 선정됐다.

블랙핑크와 김 작가는 버라이어티가 4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발표한 글로벌 54인의 리스트에 포함됐다. 이날 발표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이뤄졌다.

버라이어티는 블랙핑크에 대해 “2019년

돌풍을 일으켰고, 지난해 코로나19로 투어를 할 수 없는 동안에도 스타덤을 굳혔다.

57개 지역에서 아이튠즈 차트 1위를 차지했고, 다큐멘터리도 공개했다. 글로벌 온라인 콘서트를 열기도 했다. 이들의 인기에는 경계가 없다”고 전했다.

또 김 작가에 관해서는 “사극과 좀비 액션 스릴러 등 뜨거운 두 장르를 합친 ‘킹덤’을 만들었다. 한국 드라마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미나리의 윤여정 선생님을 볼 때마

다 힘이 난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길을 걷고 있다. 나이에 상관없이 도전하는 모습이 존경스럽다”고 말한 김 작가의 발언도 전했다.

이번 조사에는 넷플릭스의 김민영 한국·동남아시아·호주 및 뉴질랜드 콘텐츠 총괄 VP도 포함됐다. 김 VP는 ‘킹덤’에 이어 영화 ‘승리호’ 등을 통해 한국 콘텐츠의 위상을 높였다는 평을 들었다.

이와 함께 중국 배우 공리, 영국 팝스타 두아 리파, 할리우드 배우 케이트 블란쳇 등도 이번 명단에 들었다.

만화 ‘궁’, 15년만에 다시 드라마로 제작한다

제작사 ‘그룹에이트’서 리메이크

인기 만화 ‘궁’이 15년만에 다시 드라마로 제작된다.

‘궁’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재담미디어는 “최근 드라마제작사 그룹에이트와 ‘궁’ 리메이크 계약을 체결했다”고 5일 전했다.

황남용 재담미디어 대표는 “새로운 작품을 계속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존에 만들어 놓은 좋은 작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생명력을 유지시키는 것 역시 IP확장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궁의 새로운 범용은 그에 대한 주요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리메이크작 제작사 그룹에이트는 ‘미안하다, 사랑한다’, ‘환상의 커플’, ‘꽃보다 남자’, ‘내 아이는 강남미인’ 등을 선보인 제작사로 이번에 리메이크작도 글로벌 콘텐츠로서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만화 ‘궁’은 대한민국이 입헌군주국이라는 가상의 세계관 아래 왕세자인 남자 주인공과 일반인 여성 주인공의 혼인이 결정되면서 일어나는 로맨스물이다. 2003년부터 10년간 연재되면서 국내는 물론 일본에서도 밀리언셀러가 될 만큼 인기를 누렸다.

또한 드라마를 비롯해 소설, 뮤지컬 등으로 옮겨졌으며, 각종 팬시상품으로도 만들어졌다.

뮤지컬의 경우 일본에서도 공연되었다. 최



근에는 중국, 태국, 멕시코 등에서 드라마화 계약이 체결된 바 있다.

MBC TV 수목드라마 ‘궁’은 2006년 방송 당시 자체 최고 시청률이 27%를 넘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이듬해 동일한 세계관을 지닌 스핀오프 드라마 ‘궁S’까지 방송됐다.

특히 남녀주인공으로 등장했던 윤은혜와 주지훈은 이 드라마를 통해 주목받는 배우로 자리 잡았다.

나인우, 지수 대신 ‘교체투입’ 확정...‘달이 뜨는 강’ 온달 역



9월부터 온달 역으로 시청자와 만날 예정

배우 나인우가 KBS 2TV 월화드라마 ‘달이 뜨는 강’(극본 한지훈·연출 윤상호·제작 빅토리콘텐츠)에 합류한다.

KBS는 5일 “나인우를 ‘달이 뜨는 강’ 온달 역으로 캐스팅했다”고 밝혔다.

나인우는 ‘달이 뜨는 강’ 9월부터 온달 역으로 시청자와 만날 예정이다.

이 역을 연기해온 배우 지수는 ‘학교폭력’(학폭) 의혹으로 하차했다.

이미 지수가 온달을 맡아 전체 촬영의 95% 이상이 진행된 만큼, 재촬영이 불가피하다.

제작진은 돌아오는 7~8회는 최대한 편집하고 9회 방송분부터는 재촬영에 돌입하기로 했다.

나인우가 연기할 온달은 사랑을 역사로 만든 장군이다.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비폭력주의자로 살아가다가 사랑하는 여인 평강(김소현 분)을 위해 칼을 잡는다.

‘달이 뜨는 강’ 제작진은 “큰 키와 순수한 미소를 겸비한 나인우가 온달 역할에 제격”이라고 전했다.

지난 2015년 영화 ‘스물’로 데뷔한 나인우는 드라마 ‘빛나거나 미치거나’, ‘꽃길만 걸어요’, ‘쌍갑포차’ 등에 출연했다.

특히 최근 출연한 ‘철인왕후’로 눈도장을 받았다.

한편 ‘학폭’ 가해 사실을 인정한 지수는 ‘달이 뜨는 강’에서 하차하는 등 배우로서 계획된 모든 활동을 중단했다.

지난해 12월 영장을 받은 그는 오는 10월 입소할 예정이다.

양요섭X정은지 ‘러브데이’, 주요 음원차트 1위

‘바른연애 길잡이’ OST

그룹 하이라이트 양요섭과 에이핑크 정은지가 컬래버레이션한 음원 ‘LOVE DAY(러브데이)’가 주요 음원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다.

전날(5일) 발매된 러브데이는 6일 오전 기준 벅스, 지니 등 주요 실시간 음원차트 1위, 멜론 최신 24Hits 차트에서 1위에 올랐다.

러브데이는 네이버웹툰 ‘바른연애 길잡이’ 속 주인공 ‘유연’과 ‘바름’ 커플의 테마곡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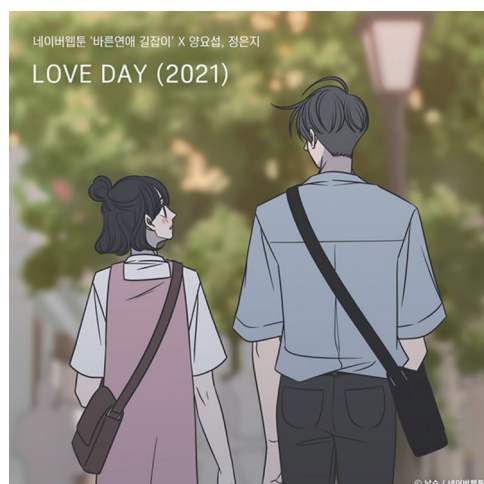
뜻깊은 사랑을 하며 서로를 더 알아가고 싶

은 남녀의 설레는 마음을 담은 고백송이다.

특히 2012년 양요섭과 정은지가 화이트데이 기념으로 발매해 꾸준한 사랑을 받았던 듀엣곡이 새로운 버전으로 재탄생해 더욱 주목받고 있다.

‘바른연애 길잡이’는 남수 작가 작품으로 계획된 생활대로 삶을 살아가던 여자 주인공 ‘바름’이 캠퍼스 생활 속에 꽃피는 로맨스를 경험하며 틀을 깨고 다른 세상과 마주하는 이야기다.

2017년 청춘로맨스 대전 최우수상을 받았고 네이버웹툰 별점 9.97을 기록하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BTS, 지난해 베스트셀러 아티스트 선정돼

전 세계 앨범 판매량·다운로드 및 스트리밍 건수 집계해 선정

방탄소년단(BTS)이 세계 음반산업을 대표하는 국제음반산업협회(IFPI)가 선정한 2020년 베스트셀러 아티스트에 선정됐다고 BBC가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로써 BTS는 지난해 ‘맵 오브 더 솔: 7’과 ‘비(Be)’ 등 2장의 앨범이 차트 1위를 차지한데 이어 또다시 2020년을 눈 부시게 장식했다.

2019년에 왕관을 차지했던 테일러 스위프트는 BTS에 1위를 내주고 2위에 올랐다.

BTS는 서구 출신이 아닌 가수로, 또 주로 영어로 노래하지 않는 가수로는 처음으로 베스트셀러 아티스트로 선정됐다.

베스트셀러 아티스트는 전 세계 앨범 판매량, 다운로드 및 스트리밍 건수를 집계해 선정된다.

BTS와 테일러 스위프트에 이어 드레이크가 3위, 위켄드 4위, 빌리 아일리시가 5

위에 올랐다.

BTS는 2013년 결성됐으며, 진과 슈가, 제이홉, RM, 지민, 뷔, 정국 등 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수백만장의 음반과 콘서트 입장권을 팔고, 수십억건의 스트리밍을 기록하면서 한국 가요계를 대표하게 됐다.

프랜시스 무어 IFPI 회장은 “BTS는 세계적인 현상이다. 그들은 놀라운 한 해를 보냈다. 자신들의 이야기를 세상과 공유할 수 있는 창조적이고 매력적인 방법을 지속적으로 찾고 있다. 그들은 음악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힘을 진정으로 보여준다”고 말했다.

무어는 이어 “RM, 진, 슈가, 제이홉, 지민, 뷔, 정국에게 축하를 전하며, 그들이 또 어떤 것들을 준비해 보여줄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뉴스